

나의 어릴 적 영국에서의 기억 중에 하나는 라디오 앞에 앉아서 "Listen with Mother" 이라는 방송을 듣는 것이다. 내 생각에 나의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진 않은 것 같다. 아마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다.

"편안하게 앉아 있나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라디오 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 "옛날 옛날에...". 라는 말로 시작한다.

혹시 한국에도 어린이 동화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등한 구절이 있는지 궁금하다.

"옛날 옛날에" 라는 말은 온갖 종류의 신비로운 일이 일어 날수 있는,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부당함, 때로는 모든 것을 결국에는 정당하게 만드는 듯한 다른 종류의 세상으로 들어 간다는 신호이다.

아이들은 무엇이 실제이고 가상인지, 심지어는 가상의 세상을 따라 잡는 것 까지도 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화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을 이해하는데, 특히 삶이 때때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습득 하게하는 대단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요즘 세대에 라디오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 구식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각적인 것과 세상과 상호 작용하는 것들이 지금 아이들 앞에 펼쳐져 있는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동화는 옛날보다는 조금 더 세련 되어지긴 했지만 거의 같은 수준이다.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고있다. 욥기는 아마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 보다 도 먼저 지어 진 것 같다. 정말 오래된 책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유목민 히브리인 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자손들에게 암송 되는 것을 상상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론 부분 뒤의 대부분은 시이다. 그리고 욥기는 인간 존재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대단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다루는 꾸며진 이야기 인 신화이다.

욥기는 "옛날옛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지각과 더 잘 연결되며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우리는 다음 3 주 동안 이 욥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개의 요지를 이야기 해보겠다. 이야기는 듣는 이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사정을 이해 하게하는 우주적 구조로 연결한다. 거기에는 보다 위인 천국의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이

있다. 사탄은 마귀와는 다르다. 사탄은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다. 그것이 사탄의 의미이다. 사탄은 사기꾼 이고 그리고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

사탄 자신의 저항적인 본성이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끈다.

욥기의 이야기에서 그 정의로운 한 남자는 천국의 영역에서 내기의 노리개로서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 신화는 인간의 마음을 찢어내는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문제를 다룬다.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더 자세히 말해서 왜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 나는가?

욥기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독자는 그와 그의 아내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고 그리고 무엇이 부당함 인지 이해하려는 시도 함으로 남는다.

모든 좋은 신화들처럼 그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마 우리는 어떻게 누구든지 욥 의 상황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과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고도 그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 할 것이다.

어떻게 욥 은 그의 친구와 그의 아내 까지도 그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상황 앞에서도, 그는 충분히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는 어떻게 그런 인내심을 유지 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든 고통을 가졌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기대와는 다르게 고통, 비탄, 상실, 아픔 모두다 삶의 한 부분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 직장, 나라 그리고 때론 가족들 까지도 잃어 버리는 영상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마음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하겠는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 칠 때 우리는 아마 어떻게 이것을 이겨 낼 수 있을까 궁금해 할 것 이다, 왜냐하면 다시는 희망을 향한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이다 "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었는가?

아마 욥 과 같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약간의 위로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위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신화가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수 천년 전에 적혀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그 이유는 어려운 질문들이 남기 때문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질문들과 함께 살아 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3 주 동안 욥기에 대해서 알아 갈 것이며 함께 무엇이 진리들인지를 찾아 낼 것이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서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마가복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마 오늘날 더 우리 삶에 관련이 있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성경 읽기에 이 부분이 나오면 때때로 덮어 버리려고 했던 것을 인정 한다.

내가 자랄 때 다니던 교회에 우리 부모님은 아주 관련이 되어서 일하셨지만 이혼을 하셨다. 나의 아버지는 교회 오르간 연주를 하는 여자와 함께 나의 어머니를 떠났다.

1950 년대 말 쯤 부부가 이혼 한다는 것은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나도 이혼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 에게는 어떻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었냐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준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더 자세히 볼 때 나의 경험들이 그들의 배경 이야기가 되는 것 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에 배경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생활에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의 한 반대자로부터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있었다.

그 당시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학설이 랍비식의 논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논란 안으로 끌어 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논란 에 빠져들지 않으신다.

물론 예수님은 모세의 법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 인지 돌아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다 동등하게 창조 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공통적인 인식이 아니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소유물이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다음은 남편의 소유물이 었다. 여성들은 아주 약간의 그들 자신의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금지 되었다.

우리 서구 사회는 그 사고로 부 터 아주 먼 거리를 지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곳에서나 모든 사회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몇 세대를 지나며 바뀌었다.

"엄마 집에 머물러 있어요" 라는 용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그 권리를 선택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멸시를 받기도 한다, 반면에 얼마 전에는 그것이 일반적 이었다. 과거에는 결혼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부부는 단지 참으면서 함께 치명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이 허용되었다. 남자가 이혼 장 을 받는 것이 허용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물론 그가 다른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그는 쉽게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므로 간통죄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혼이 자주 여성을 완전히 공동체 에서 취약하게 만든다. 여성은 그녀의 보호를 위해서 남성의 소유가 되어야 했다. 나오미와 룻을 예로 생각해보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읽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취약점은 보호되어 져야 하고 어딘가에 속해 있을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취약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그의 주위에 모으고 주목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더 어려운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옅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 처럼 모든 일어 나는 일에 이유를 알아야만 하고 또는 어떤 것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너무 흔한 경향에 직면 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의 원인을 이야기 할 수 만 있다면 모든 것은 훨씬 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자신을 비난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죄책 감을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내가 그것을 단언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최근에 Rosie Batty 로 부터 강조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정 폭력이다. 거의 오래 전부터 남아있는 태도 중의 하나는 남성이 그의 화를 그의 아내나 또는 여자 친구에게 해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다.

마치 옛날부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특권 의식을 허용 한 것 같다. 나는 여성이 쓸모 없고, 죄의식을 느끼고, 수치스럽고, 겁먹은 상황에서 그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 나고 있다.

내가 파라마타 에서 목회자로 일을 할 때 경찰목사로서도 사역을 하였다. 어느 한 크리스마스 날 나는 9시 예배를 마친 후 경찰소에 크리스마스 케익을 전달해 주기 위해 갔었다. 오전 10시 30분쯤 내가 차 밖으로 나 왔을 때 나는 이미 벌써 3번째 가정 폭력으로 아침부터 호출을 받고 돌아오는 2명의 젊은 여순경을 만났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들 만이 아닌 모든 지역 사회 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자 그럼 오늘아침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 이야기 가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취약점과 그리고 때때로 보여지지 않거나 오해되어지는 고통에 관해서 세상을 위해 주님의 공동체로서 서로간에 어떻게 반응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왔다. 우리는 인간존재의 핵심이 되는 진실인 그 고통이 때때로 우리를 오해의 면전에서 옴 처럼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지탱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를 두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진실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생존의 핵심인 온전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차분하게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본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고통에 직면 했을 때 도전 중에 하나는 너무 쉽게 대답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떠한 비난과 심판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들을 만들어 내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지지 하는가 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시대에는 병으로 부터 의 고통은 개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한 죄로 야기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것에 반박 하셨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것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주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 하는 것 보다 형벌을 생각한다.

외부에서 교회를 볼 때 종종 공동체로서 받아 주는 것 보다는 실패를 비난하는 하는 곳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전도자 Tony Campolo 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 이다. 그는 회의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시내로 갔다. 오후쯤 그곳에 도착해서 그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밖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 한참 후에 그는 밤새 영업을 하는 카페 하나를 발견하고 그 카페로 들어 갔다. 그는 이 카페가 이 늦은 시간에도 아주 바쁘다 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 카페에 한 여성이 앉아있는 곳에 오직 한 자리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여성에게 그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 보았고 그 여성은 조금 불편해 하며 동의를 했다.

목회자로서 Tony 는 그녀와 이야기 하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먼저 Tony 에게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Tony 는 이 도시에 방문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 했을 때 그 여성은 자신의 삶은 Tony 삶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밤의 여인"인 창녀 였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계속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였고 더 슬프게도 내일이 그녀의 생일 인데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

그 다음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연설을 마친 Tony 는 밤에 다시 그 카페로 찾아 갔다. 이번에는 생일 케익과 풍선을 가지고 갔다. 그 여성은 그 카페에 있었고 Tony 를 보고 당황해 했다. 그리고 그 카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파티가 열렸다. 그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여성은 눈물 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고 그녀는 교회가 창녀에게도 파티를 열어 주는 곳이라면 그곳에 참여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이 내가보기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순간 인 것 같다. 공동체의 소속감은 현실에서의 고통을 서로 받아주고, 어떤 것이 언뜻 보기에 달라 보여도 서로 허용 하는 것이다.

만약 그녀가 욥의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그녀 자신이 욥 과 유사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욥의 이야기는 상실, 투쟁 그리고 속수무책이었던 그녀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 할 수 있는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하나되는 소속감을 만드셨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 되는 것을 어려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잠시 후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의 삶 전체를 그들을 위해서 주셨는지를 보여주며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상징적인 만찬인 성찬식을 나눌 것이다. 예수님은 감히 생각하기에도 불가능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모든 종류의 오해와 도전을 수행함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 주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욕기와 복음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연결 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진리이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에도 계속 우리를 진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